

# 愚伏 鄭經世의 철학과 경세론

장 승 구\*

## 차례

- I. 머리말
- II. 우복의 철학사상
- III. 우복의 경세론
- IV. 우복 예학의 특징과 그 의미
- V. 맺음말: 우복 정경세의 학문적 위상과 그 의의

### 【국문초록】

우복 정경세(1563-1633)는 서애 류성룡의 수제자로서 퇴계의 再傳 제자에 속한다. 그는 상주 출신의 남인으로서 서애의 뒤를 이어 중앙정계에서 활발한 관직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유지하며 17세기 초반 영남 학계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으로 국난이 지속되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관직생활을 하였다. 우복은 서애로부터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물려받아서 간행함으로써 퇴계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주자대전』 가운데 중요한 글을 선택하고 모아서 『주문작해』를 편저함으로써 『주자서절요』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자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우복은 학통상 퇴계학과에 속하는데 일부에서 그의 리기설은 율곡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존 『우복집』을 분석해보면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퇴계학과에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기설에 있어서 리와 기의 일물설을 비판하고, 리와 기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격물과 물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퇴계의 理到說을 계승하여, 格物을 순념을 청하는

\* 세명대학교 교수

것으로 物格을 손님이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사단칠정론에 있어서는 사단을 칠정의 일부로 보지 않고, 양자를 구분해서 보려는 입장이다. 칠정도 형기가 아니라 성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인의 경우에 가능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고 인식한다. 공부론에 있어서는 存養은 靜時의 공부만이 아니라, 靜時와 動時를 겸한 統體 공부라고 인식한다. 공부는 성인의 경서에 대한 세밀한 학문적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높은 단계의 정신 경지를 지향해야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여겼다.

우복은 선조대부터 시작하여 광해군을 거쳐 인조대까지 벼슬을 하였다. 그 중 광해군 때에는 시련이 많았고 낙향하여 은거하기도 하였으나 인조대에는 중용되어 대제학·대사헌·이조판서 등의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우복은 선조대부터 경연관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인조대에는 8년에 걸쳐 장기간 경연에서 경서를 강의하면서 국정을 논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복의 경제론은 그가 올린 상소문과 경연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를 보면 우복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왕실이) 절검을 해야 하고, 인재의 선발과 등용이 공정해야 하며, 군주의 일심을 바르게 하기 위한 수양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조가 반정에 성공하고 나서 올린 「弘文館 八條筭」에서는 '큰 뜻을 세울 것', '성학에 힘쓸 것', '중통을 중시할 것', '효와 경을 다할 것', '간쟁을 받아들일 것', '보고 듣는 것을 올바른 계통을 통해서 할 것', '궁궐의 법도를 지킬 것', '백성들의 인심을 안정시킬 것' 등을 건의하였다. 정묘호란을 겪고 나서 올린 「玉堂論時務筭」에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총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총포 사수 1만 명을 양성하고, 조총 1만 정을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복은 예론에서는 명분과 실재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교육에 필요한 예절과 관련하여 『養正篇』을 편저하였으며, 고급의 상례를 모아서 『喪禮參考』를 지으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고, 禮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 『思問錄』을 저술하였다.

요컨대 우복은 17세기 초반 예학 및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철학과 경제론을 실천으로 옮긴 모범적 관료이자, 민본주의적인 경제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인 학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퇴계학을 서인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학문적 교류와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주제어

우복 정경세, 퇴계 이황, 류성룡, 김장생, 영남학파.

## I. 머리말

愚伏 鄭經世(字 景任, 1563-1633)는 조선조 가운데도 가장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왜란과 호란의 시대를 살았던 관료이자 학자이다. 그는 퇴계 이황(1501-1570)의 학통을 이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의 수제자로서 퇴계학파의 정맥을 잇고 예학의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남인의 퇴계학파에 속하면서도 서인파도 교류하고 소통하였던 열린 지식인이었다. 우복은 도남서원을 설립하여 상주지역에 퇴계학과 성리학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sup>1)</sup>

우복은 퇴계를 매우 존경하여 “퇴계선생은 동방의 주자이시다. 동방의 학문은 퇴계에 이르러 비로소 집성되었다.”<sup>2)</sup>고 하였다. 우복은 퇴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퇴계의 고제인 서애를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 서애가 상주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하는 동안에 우복은 서애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으며, 일생 동안 사제의 관계를 이어갔다. 우복에게 서애는 단순한 학문적 스승이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고 사람을 심취하게 하는 매력적 인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우복은 스승 서애의 인품을 “灑落如水

1) 우복이 상주 지역의 퇴계학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는,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한국의 철학』제28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149-178쪽)과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가 참고됨.

2) 『우복선생별집』권8, 부록(인행록) 21쪽, “先生嘗曰: 退溪先生是東方朱子, 東方之學至退溪而始集成.”(이하에서 인용하는 『우복선생문집』과 『우복선생별집』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77년에 간행한 『愚伏先生文集』에 실린 판본을 저본으로 함.)

壺秋月”이라고 하고, 또한 “如精金美玉”이라고 하였다. 서애에게는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하면 온화하고, 말을 들어보면 힘쓰게 면려하는 기상이 있다고 한다. 서애는 五賢의 반열에 전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복은 서애를 진심으로 존경하였다.<sup>3)</sup>

우복은 책을 쓰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았다. 고금의 상례를 모아서 喪禮參考를 지으려고 했으나 책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말년에는 주자대전 가운데 封事, 序, 記, 碑銘, 祭文 등에서 글을 가려서 뽑아 『朱文酌海』를 편저하였다.<sup>4)</sup> 『朱文酌海』는 퇴계가 지은 『朱子書節要』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주자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헌이 된다. 우복은 경연관으로 시강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待講之才’라는 평과 ‘國士’라는 찬사를 들었다. 임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는 기개를 보여주었고, 전란으로 인한 병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인 存愛院<sup>5)</sup>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우복은 조선조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자강’과 ‘무실’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 그는 관료이자 학자로서 정치, 외교, 국방, 행정, 교육, 문화, 언론, 예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고, 성리학적 철학을 행동으로 실행한 경세가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우복선생문집』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이 퇴계학맥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리기설, 격물설, 사단칠정론, 공부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우복의 입장과 견해를 분석해 보기로

3) 『우복선생문집』 권8, 부록(언행록) 21-22쪽 참조.

4) 『우복선생문집』 권9, 부록(신도비명) 34쪽 참조. 『朱文酌海』 문헌에 대한 설명은, 이봉규 교수의 「우복 정경세의 학문활동과 『朱文酌海』의 성격」(『朱文酌海』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7-28쪽) 참조.

5) 존애원에 대한 상세한 연구서로서는 다음 서적을 참고할 것. 권태을·김기탁·김자상·한기민 공저, 『조선최초 사설의료원-存愛院』, 문창사, 2005.

한다. 그리고 각종 상소문이나 경연에서의 담론을 통해 그의 시국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논리를 검토함으로써 경세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고, 나아가 경세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그가 왜 예에 대해 관심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예설은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II. 우복의 철학사상

우복은 당시 율곡의 학통을 계승한 沙溪 金長生(1548 -1631)과 학문적 교류를 많이 하였다. 두 사람은 예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리설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학설이 합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론의 차이를 견지하고 상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복과 사계 사이의 학문적 교류와 논쟁은 『우복집』 권14의 「金沙溪 經書疑問辨論」에 주로 실려 있고, 또한 『사계전서』 「經書辨疑」에 실려 있다. 우복의 「김사계경서의문변론」에 나오는 내용을 사계의 「經書辨疑」와 대조해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일부 내용은 「김사계경서의문변론」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經書辨疑」에는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자를 철저히 대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텍스트 사이에는 일부 내용과 글자에 차이가 있어서 상호 세밀한 대조를 필요로 한다. 사계는 율곡설의 입장에서 퇴계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서, 우복은 대체로 퇴계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우복의 철학사상은 단일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김장생·이수광·송준길·이준·김만열·이기재 등과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글과 『사문록』, 『경연일기』 등에 산재되어 있다.

## 1. 리기설

퇴계학과의 리기설의 특징은 理發을 인정하고, 리기일물설에 반대하여 리와 기의 구분을 중시하고, 기에 대한 리의 논리적 우선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우복 역시 퇴계학과의 리기설의 주요한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우복은 리에 동정이 있으니 기에도 동정이 있다고 하여, 리의 동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리가 기의 동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한다.<sup>6)</sup>

그리고 우복은 리가 없는 기도 없고 기가 없는 리도 없어서 리와 기에는 선후가 없긴 하지만, 근본을 미루어서 논하자면 먼저 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언명을 제시한다.

易大傳에서 말하는 “태극이 양의를 낳고,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고 한 것과, 주돈이가 말한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다.”고 한 것과, 주자가 말한 바 “만약 태극이 없다면 천지는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고 한 것은 모두 리는 기가 따라 나오는 바라고 인식하는 것이다.<sup>8)</sup>

리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근원을 미루어 보면 리가 기에 우선한다고 인식하는 우복은 서산 채씨가 말한 “천하의 萬理는 一動一靜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sup>9)</sup> 일동일정은 형

6) 『우복선생문집』권12, 28-29쪽 「答金萬悅」, “來書以理氣分動靜又是大錯。理有動靜故氣有動靜。豈有無理之氣耶。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 此兩句豈不大段較然乎。” 참조.

7) 『우복선생문집』권2, 1쪽, 『思問錄』, “按: 天下未有無理之氣, 亦未有無氣之理。固無先後之可言。然若必欲推本而論, 則須說先有理。” 참조.

8) 『우복선생문집』권2, 1쪽, 『思問錄』, “大傳所謂太極是生兩儀。一陰一陽之謂道。周子所謂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朱子所謂若無太極便不顯了天地者。皆以理爲氣之所從出。”

9) 『우복선생문집』권2, 2쪽, 『思問錄』, “今蔡氏若言理在一動一靜之中則可。謂理出於一動一靜則大爲可疑。竊詳蔡氏四脚立說文勢語脈, 理字似是化字之誤。而傳疑亦不致疑。今未敢質言。然將那形而上者爲出於形而下者, 恐無是理如何。” 참조.

이하자이고 리는 형이상자인데, 채씨는 형이상자가 형이하자에서 나온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계 김장생은 『경서의문』에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陳淳이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면서 천지의 이치를 얻고 또한 천지의 기를 얻어서 리와 기가 합한 까닭에 虛靈하다.”고 하였는데, 율곡은 말하기를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태극도설의 “妙合而凝”에 대해서 주자는 해석하기를 “混融無間”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자의 해석을 율곡은 매우 찬탄하였다 운운. 그리고 퇴계가 리와 기를 두 가지 것으로 나눈 설은 잘못이다 운운<sup>10)</sup>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사계의 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복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우복에 의하면 리와 기는 본래(부터) 한 가지 물건이 아니다. 다만 일찍이 서로 떠나지 않은 고로 ‘混融無間’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無間이라는 두 글자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二物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율곡도 반드시 리와 기를 한 물건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우복은 말한다. 그러면서 사계의 기억이 잘못일 것이라고 하였다. 우복에 의하면 기와 리가 합해서 성이 되는 것은 주자의 학설이므로 진순의 이조목은 쉽게 깨뜨릴 수 없다. 그리고 진순은 虛자으로써 리에 속하고 靈자으로써 기에 속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중간에 하나의 又자를 넣어서 밝힌 것이지, 사계가 생각하듯이 먼저 리를 얻고 다음에 기를 얻는다는 뜻이

10) 『우복선생문집』권14, 27쪽, 「金沙溪經書疑問辨論」, “北溪陳氏曰：人生得天地之理，又得天地之氣，理與氣合，所以虛靈。栗谷謂：理氣元不相離，不可言合云云。太極圖說，妙合而凝。朱子釋之曰：混融無間。栗谷甚贊嘆之云云。且以退溪分理氣爲二物之說爲非云云。”

아니라고 한다.<sup>11)</sup>

이와 같이 우복은 리와 기가 결코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본성을 달리하는 두 가지 존재이지, 결코 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퇴계와 마찬가지로 기에 대한 리의 차이와 우월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일각에서 말하는 우복이 리기설에서는 율곡설을 따랐다고 하는 것<sup>12)</sup>은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격물치지론

격물치지론에서 ‘物格’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우복은 주자가 말하는 “物理之極處無不到”에서 到가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내 마음(吾心)에 來到한다고 본다. 우복은 “格物而物格”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즉 객을 청하면 객이 오는 것과 같다.<sup>13)</sup> 격물은 객을 청하는 것과 같고, 물격은 객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주관이 사물의 리를 탐구하면 그 리는 내 마음에 來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서 사계는 “물리는 본래부터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다시 내 마음에 오는 이치가 있다가?”라고 반박한다. 사계는 율곡을 따라서 물격이란 “物理到極處” 즉 물리가 극처에 이른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격물과 물격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우복은 분명히 율곡의 해석을 반대하고 퇴계의 理到說을 지지하고 있다.

11) 『우복선생문집』 권14, 27쪽, 『金沙溪經書疑問辨論』, “理氣本非一物. 但以未嘗相離. 故謂之混融無間耳. 詳無間兩字, 則其爲二物明矣. 栗谷必不以理氣爲一物. 竊恐高明記得錯耳. 況氣與理合而成性, 乃朱子之說, 北溪此條, 未可容易攻破也. 北溪欲以虛字屬理, 靈字屬氣, 故中間着一又字以明之耳. 非以爲先得理次得氣, 如高明所疑也.” 참조.

12) 우복이 격물설은 퇴계를 따랐지만 리기설과 사단칠정설은 율곡의 학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는 설은, 동춘당 송준길이 우복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우암 송시열이 전해 듣고서 기록하여 전한데서 유래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42-247쪽 참조.

13) 『沙溪全書』 권11, 『경서석의』, “蓋格物而物格譬如請客而客來云耳.”

### 3. 사단칠정론

우복에 의하면 리가 본이 되고 기가 용이 되는 것(理本氣用)은 천지 음양 조화의 묘이다. 칠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흠의 이치가 가운데 있으므로 발해서 흠이 되고, 怒의 이치가 가운데 있어서 발해서 怒가 된다. 주자가 ‘理之發’ ‘氣之發’이라고 한 것도 리와 기 가운데 한 가지만 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중심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즉 사단은 리가 중심이 되고, 칠정은 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4단이나 7정은 중심된 것은 리와 기로 다르지만, 모두 리와 기 어느 한쪽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복은 희노애락을 인의예지와 짜맞추어 배정하는 것은 건강부회라고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으로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맹자의 즐거움이나 문왕과 같은 성인의 노여움은 정당하다. 그러한 노여움은 리에서 발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그 아래의 사람에게서는 칠정이란 순수하게 도덕적이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程明道와 같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군자도 형기의 즐거움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예를 든다. 그러므로 『상서』 「虞書」에 나오는 16자가 심법의 요령이 된다고 한다.<sup>14)</sup>

우복은 사단은 도심의 발현이고, 칠정은 형기에서 나온다고 하면서도, 칠정이 형기가 아니라 性命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예컨대 맹자가 즐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순이 四凶에 대해서 노여워한 것,

14) 『우복선생문집』 권11, 22쪽, 「答曹汝益」, “喜之理在中, 故發而爲喜. 怒之理在中, 故發而爲怒. 無其理則何以發乎. 理爲之本而氣爲之用, 乃天地陰陽造化之妙, 七情何獨不然. 朱子所謂理之發氣之發云者, 特各以其主張者言之耳, 非謂四端無氣而七情無理也. 如此, 則性情之爲體用, 乃有二樣, 全不成造化矣. 是以, 李先生始有氣隨理勝之說. 而終則曰: 不如用朱子本說之爲無病也. 今人欲以喜怒哀樂分配於仁義禮智者, 尤覺牽強. 七情自七情, 四端自四端, 恐不可相合也. 聖人一性湛然, 全是天理. 故七情之發, 亦純是天理. 孟子之喜, 文王之怒, 何嘗不發於理耶. 下聖人一等則不能然, 故雖以明道之資之美, 不免有形氣之喜. 此虞書十六字所以爲心法之要也.” 참조.

공자가 안연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 등은 모두 천(리)에 합치되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우복의 4단7정론은 퇴계의 4단7정설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율곡학파의 4단7정론의 문제의식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입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진일보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 4. 공부론

퇴계가 존양은 靜으로만 말하고, 함양은 動과 靜을 겸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 이것은 주자의 생각과 다르다는 지적을 사계 김장생이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우복은 존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6)</sup> 일반적으로 말하면 존양은 정시의 공부이고 성찰은 동시에 공부이다. 이는 曾祖道가 기록한 주자의 말이고, 『중용집주』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복에 따르면 존양을 정으로 말한 것은 대강을 말한 것이고, 자세히 미루어보면 존양은 동정을 겸한다. 예컨대 일을 할 때 마음을 그 일에만 두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아서 마음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존심양성의 공부이다. 우복은 이것을 ‘동 가운데의 정(動中之靜)’이라고 부른다. 공자가 말한 “거처하기를 공손히 하고, 일을 집행하기를 공경히 하고, 문을 나서서는 큰손님을 보듯이 하고, 백성을 부리면서는 큰 제사를 받들듯 하라”고 한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存心을 가르친 것이라고 우복은 해석한다.<sup>17)</sup> 그러므로 존심이란 정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과 동을 겸

15) 『우복선생문집』권3, 25쪽, 「經筵日記」, “上曰: 孟子所謂四端爲道心耶? 經世曰: 四端道心之發見也. 上曰: 人心亦有仁義禮智乎? 經世曰: 七情出於形氣. 而如孟子之喜而不寐. 舜之怒四凶. 孔子之慟顏淵. 皆合於天. 則蓋七情所包者廣. 或出於形氣. 或出於性命. 性命則專歸於四端也.” 참조.

16) 『우복선생문집』권14, 30쪽 「金沙溪經書疑問辨論」, 참조.

17) 『우복선생문집』권14, 30쪽 「金沙溪經書疑問辨論」, 참조.

한 統體공부라고 우복은 인식한다. 우복의 존심에 대한 해석을 보면 우복은 마음을 보존하는 존심 공부가 정시에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일상생활 속에서 동시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퇴계가 존양을 정시공부라고 이해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애가 우복에게 朱子書를 보내면서 주자의 책 가운데 무한한 광풍계월의 경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주자의 책을 보는 사람이 먼저 ‘蠶絲牛毛(누에고치실과 쇠털)’ 같은 자질구레한 데서 실마리 찾기를 면하지 못하여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은 가슴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서애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우복은 반론을 제기한다.<sup>18)</sup> 성인의 학문은 ‘박문약례’를 원리로 한다. 즉 우선 폭넓게 공부하는 박문을 하고나서 이를 토대로 원리를 파악하여 요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잠사우모’와 같은 경전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부를 자질구레하다고 물리치면 이는 한번에 頓悟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물론 우복도 ‘잠사우모’와 같은 세밀한 것에만 빠져서 궁극적 경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口耳之學이 된다고 경계한다. 그래서 우복은 이처럼 ‘잠사우모’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공부의 처음에는 ‘잠사우모’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다 높은 경지, 궁극적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애와 우복의 공부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면, 우복은 공부란 성인의 경서(학문)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공부에서 시작하여야 하지만,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정신경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퇴계집』에 비해서 『우복집』에는 철학적 성격의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예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큰 비

18) 『우복선생문집』권9, 2-3쪽, 「上西厓先生-甲辰-, 참조.

증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퇴계와 율곡에 의해 성리철학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기 때문에 후학들로서는 이미 확립된 철학의 바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각각의 학파마다 리기철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으므로 그 기초 위에서 실생활과 보다 긴밀한 관련이 있는 예학적 물음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우복의 경세론 - 상소문과 경연 내용을 중심으로 -

우복은 선조대부터 인조대에 이르기까지 국난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벼슬을 맡아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였다.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방식과 대책을 강구하였을까? 우복의 사상이 경세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표적 상소문과 경연강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sup>19)</sup>

#### 1. 「應求言教疏(戊申)」에 나타난 경세론

應求言教疏는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구언을 청하는데 응해서 우복이 올린 상소이다.<sup>20)</sup> 이 상소문은 당시의 정치현실에 대한 우복의 거침없는 비판과 시국인식 태도 및 대응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상소에서 우복은 임란후의 피폐해진 민생을 의식하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제하기

19) 우복의 경세론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는, 우인수,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9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 99-134쪽.)이 참고됨.

20) 『우복선생문집』 권3, 32-46쪽, 「應求言教疏 戊申」, 참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 대한 노동력 동원을 줄이고 그들의 민생을 두텁게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왕실, 국가가) 절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절검을 하지 않고서 부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여 백성을 구휼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물의 근원을 막지 않고서 그 하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특히 山陵大役과 詔使接待, 전란으로 파괴된 궁궐 재건 등이 문제가 된다. ‘量入爲出’이 아니라 ‘量出爲入’하여 욕망에 따라 재물을 거두면 백성의 삶이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근래 국가의 재정이 일 년 간의 세수로서 일 년 간의 쓰임을 충당할 수 없으니 이는 이른바 나라아닌 나라라고 비판한다. 우복은 재정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절제 없는 예산지출로 백성의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우복은 무엇보다도 백성을 구휼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즉 우복의 경제론은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인식하는 민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건의하는 문제는 인재의 선발 등용과 관련이 있다. 인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선발되고 발탁되어야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가지가지 수단을 부려서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여 되는 등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복은 인사의 공정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군주 一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수양과 학문을 강조한다.

신이 듣건대 천하의 온갖 일들이 군주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안으로는 궁궐에서부터 밖으로는 조정까지, 가까이는 도성으로부터 멀리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바름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상서』에서 말하는 ‘皇建其極’, 맹자가 말하는 “一

正君而國定”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sup>21)</sup>

군주의 마음이 발하지 않고 고요한 때에는 명경지수와 같아서 만 가지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고, 마음이 느껴서 통하게 되면 일에 따라 순조롭게 대응해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치를 궁구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두어야 하고, 나중에는 敬을 위주로 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즉 우복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格物과 主敬을 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상서』「虞書」의 ‘精一執中’이나 공자의 ‘格致誠正’ ‘克己復禮’나, 자사나 맹자의 ‘明善’ ‘誠身’도 바로 마음의 공부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복은 군주에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한결같이 예에 맞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검속하는 것이 남이 안 보는 곳에서조차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복은 임란 이후 피폐한 민생현실을 직시하고 백성들의 민생과 국가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잘못된 인사행정을 지적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학문과 수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 상소를 본 광해군은 진노하여 상소를 불사르게 하고, 선왕을 모독하는 말이 있다고 국문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이항복 등이 구명하여 관직을 삭탈당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처럼 우복의 상소문은 거리낌이 없이 군주와 정치의 득실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 『우복선생문집』권3, 44쪽, 「應求言教疏 戊申」,

22) 『우복선생문집』권3, 44-45쪽, 「應求言教疏 戊申」, 참조.

## 2. 「弘文館八條筭」에 나타난 경세론

「弘文館八條筭」는 인조가 반정으로 집권한 원년에 올린 글로서, ‘立大志’, ‘懋聖學’, ‘重宗統’, ‘盡孝敬’, ‘納諫諍’, ‘公視聽’, ‘嚴宮禁’, ‘鎮人心’ 등 모두 8가지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큰 뜻을 세울 것(立大志)’에서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뜻을 원대하게 가져서, 옛 성인처럼 할 것을 목표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성학에 힘쓸 것(懋聖學)’에서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한 ‘惟精惟一’의 심법은 만세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이고, 千聖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百王이 함께하던 법이라고 강조한다. 군주는 독서와 공리, 戒愼恐懼와 성찰의 공부를 바탕으로 하여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중통을 중시할 것(重宗統)’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보다 중통을 계승하는 의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조의 생부인 정원대원군에게 제사를 올릴 때 考라고 일컫되 皇자는 쓰지 말고, 스스로를 子라고 일컫되 孝자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효와 경을 다할 것(盡孝敬)’에서는 참된 효도는 봉양만 잘해서는 안 되며 공경을 잘해야 하며, 공경을 잘한다는 것은 선으로 인도하고 도로써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여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조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였다. 이 때 인목대비의 주변사람이 권세를 믿고 법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복은 자전(인목대비)이 백성들에게 죄를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인조에게 단속을 요구하였다.

‘간쟁을 받아들일 것(納諫諍)’에서는 천하의 걱정 가운데 끝은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없고, 끝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간사한 자가

23) 『국역 우복집』1, 민족문화추진회, 2003, 219-235쪽 참조.

사슴을 말이라고 진실을 왜곡해도 군주가 모르게 되는 폐해가 온다고 경고한다. 인조는 신하들의 면전에서 간언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정사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디 간언을 따라서 정사에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고 듣는 것을 올바른 계통을 통해서 할 것(公視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충명을 넓히지 못하고, 私人을 두어서 군주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공조직의 신하를 통해서 천하의 일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환관·궁첩·내외척 등을 통하여 보고 들어서 정보의 왜곡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궐의 법도를 지킬 것(嚴宮禁)’에서는 시정의 잡인들이 뇌물을 들고 함부로 궁궐을 출입하고, 사삿집의 여종이 대궐 내에서 유숙할 정도로 궁궐이 무법지대가 되었음을 비판한다. 특히 자전(인목대비)과 관련되어서 함부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궁궐의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백성들의 인심을 안정시킬 것(鎮人心)’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그들의 인심이 흔들려서 안에서 붕괴되는 화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해가 더 심하다고 경고한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백성들의 힘이 다하여서 지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편안치 못하여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제안한다.

인조 원년에 올린 이 차자는 당시의 시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주요 원칙은 물론 예민한 현안 문제까지 꺼리지 않고 논의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3. 「玉堂論時務劄」에 나타난 경제론

정묘호란을 겪고서 우복은 玉堂論時務劄을 올렸다.<sup>24)</sup> 여기서 우복은 만주족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대책을 건의한다. 우복은 적을 막는 대비로서 砲만한 것이 없으므로 포수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각 3,500명, 충청도에서 2,500명, 강원도에서 500명 등 총 1만 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훈련시켜서 총포를 쏘는 사수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 조총은 견고하고 정교하지 못하여 쉽게 파손되고 명중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제사와 경상좌우병 水使에게 수량을 배정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왜총을 무역하게 하고, 동래부사로 하여금 稅銀을 가지고 왜총을 구입하게 하거나 역관으로 하여금 화물을 싣고 대마도에 가서 총을 무역하게 하면 일만 자루의 조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한다.

### 4. 「號牌量田議」에 나타난 경제론

우복은 당시 쟁점이 되었던 號牌와 量田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sup>25)</sup> 호패법을 시행하여 젊은이는 군대 조직에 편성하고, 군에 복무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은 價布를 거두어서 軍餉을 돕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는 힘든 군에 가고 누구는 편안하게 집에서 사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호패법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임란 이후 백성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떠돌아다니는 까닭에 실제로 군역을 하는 사람의 수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호패법을 시행하여 갑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강요하기란 쉬운 일이 아

24) 『우복선생문집』권5, 16-22쪽 「玉堂論時務劄」, 참조.

25) 이하는 『우복선생문집』권8, 4-5쪽 「號牌量田議」, 참조.

나라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量田은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므로 먼저 양전을 시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을 꾸려나가게 하여 국가 기강이 잡히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풍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 여유가 생긴 다음에 호패법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건의한다. 호패와 양전에 대한 우복의 입장을 보면, 정책을 시행할 때 지나치게 원칙과 이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중시한다. 즉 우복의 경제론은 추상적 이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 여건과 정책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 우복의 경제론은 대체로 성리학적 경제론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군주의 一心을 중시한다. 군주의 일심이 천하 만사의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군주의 일심을 잘 수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복에 따르면 군주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과 신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다. 경외의 대상은 天, 祖宗, 民, 大臣, 臺諫의 순서이다.<sup>26)</sup> 그리고 군주가 올바르게 정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學과 思의 공부가 필요하다. 학을 통해 이치를 배우고, 사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실과 조정을 도덕적으로 다스리고 인사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사를 성인의 예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이 제정한 예는 중용에 맞게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에 이끌려 지나치게 쉬우므로 예법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를 줄일

26) 『愚伏先生別集』권3, 41쪽, 『經筵日記』, 참조.

수 있는 길이다. 그 외에도 군주는 절검을 하고 나라 살림을 아껴야 한다. 만일 절검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많이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세 부담과 노동력 동원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우복은 천도는 선을 지으면 상서로운 일이 있고, 불선을 행하면 재앙이 내리는 것이 항상스런 이치라고 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것이 진실로 상도이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충신과 의사가 억울하고 비통하여 혹 흉하게 생을 마치기도 하고, 반대로 흉악하고 완악한 사람이 혹 선종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이치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서 우복은 氣數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한다.<sup>27)</sup> 즉 역사는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복에 의하면 신하는 기수가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命에 맡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군주는 기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일 군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命에 달려 있다고 여겨서 인간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은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이다. 폭군 紂처럼 덕을 닦지 않고 하늘의 운명에만 맡기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복은 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못 다스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주와 신하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즉 이 세상의 행복은 정치 주체의 도덕성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이 도덕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님을 우복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운명에 맡겨서는 안 되고 군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8)</sup> 운명에 맡기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

27) 『愚伏先生別集』 권3, 66쪽, 「經筵日記」, 참조.

28) 『愚伏先生別集』 권3, 67쪽, 「經筵日記」, 참조.

을 통해 좋은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는 것이다.

#### IV. 우복 예학의 특징과 그 의미

우복은 한강 정구·사계 김장생과 함께 17세기 초반의 조선 예학을 이끌어 나간 예학의 대가이다. 퇴계학과 서애학을 계승하는 우복도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인식의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성리학의 최고 범주인 理는 禮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는 인간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서, 理가 구체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理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우복에 있어서 퇴계 리학은 예학으로 심화되고 있다. 물론 퇴계학은 리학·심학·예학·경제학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우복에게 있어서는 예학과 경제학적 관심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예는 人情의 표현이기도 하고, 義理의 표현이기도 하다. 예가 인정과 상반되어서는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은 항상 과도하기 쉽기 때문에 인정의 표현에는 어느 정도 절도와 절제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예는 인정을 알맞은 선에서 규율하고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연적이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리라는 규범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는 인간으로서(일정한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관계된 왕 또는 왕실 관련된 예에서는 (인간적 정리보다도) 사회적 의리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우복은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 인정과 의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잘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를 제정하였으므로 성인의 예를 바르게 이해

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예설에 대한 이해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의 경우에는 예설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학자들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설을 검토하지 못하고 주관적 편견이나 사욕 또는 억측 때문에 올바른 예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예는 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는 경의 표현이다. 그리고 예가 없으면 경이 베풀어질 데가 없다. 그런데 우복에 의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경이 부족하고 예가 남는 것보다는 예가 부족하고 경이 남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인식한다.<sup>29)</sup> 그리고 예는 義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樂은 같음을 추구하고 禮는 다름을 추구한다. 같음을 구하는 악은 인으로써 사랑하는 일이라면, 다름을 구하는 예는 의로써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예와 악의 근본은 인과 의이고, 인과 의의 用은 예와 악이라고 인식한다. 仁義의 본성은 하늘에서 나오는데 반해 예악을 제작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복에 의하면 본말선후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 의가 본이고 선이며, 예와 악은 말이고 후이다.<sup>30)</sup> 요컨대 우복에 의하면 예는 의를 구현하기 위함이고, 예의 실천에는 경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법에는 고례가 있고 시왕의 예법이 있는데 고례를 지키는 것이 좋지만, 시대 상황이 다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시왕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고 본다.<sup>31)</sup> 우복은 자

29) 『우복선생문집』권13, 10쪽, 「答道南山長」, “先儒之言曰: 祭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今執事之不備, 不過爲禮不足而已. 若遂廢祭則敬無所施, 豈有此理?” 참조.

30) 『우복선생문집』권2, 30쪽, “按: 樂之所以爲同, 仁以愛之之事也. 禮之所以爲異, 義以正之之事也. 仁義者禮樂之本, 禮樂者仁義之用. 仁義之性出乎天, 禮樂之作出乎人. 此其本末先後, 自有整然不可混者.”

31) 윤친근은 우복의 예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고례를 중시하고, 가례를 중시하면서도, 시왕의 제도와 풍속을 아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를 크게

기의 예설 정립에서 퇴계설을 일차적으로 존중하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 사계 김장생과 예의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도 많다. 『주자가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자가 초년에 지은 것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며, 만년설과는 같지 않은 점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sup>32)</sup>

우복이 17세기에 들어서 예를 강조하는 것은, 임란으로 민생이 피폐하기 이를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민력을 헤아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력 동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왕실이나 민간이나 예에 의해서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과소비를 줄여서 백성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복의 예학을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626년 인조의 생모인 인현왕후의 상이 있었다. 이 때 인조가 그의 생모를 위해 3년복을 입을 것인가 기년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 최명길과 이귀는 朴知誠의 이론에 따라 3년복을 주장하였다. 우복은 이 문제에 대해 삼년복을 반대하고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儀禮』喪服의 不杖期條에서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後嗣가 된 사람이 생부모를 위해 보답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子夏의 傳에서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기년복을 입는가? 참취를 두 번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참취를 두 번 입을 수 없는가? 대중을 승중하는 사람은 소중에 대해서는 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sup>33)</sup> 우복은 이 구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기도 하는 것이 정경세의 예학이라고 하겠다.”(윤친근, 『실천적 예학자 정경세』, 한국국학진흥원, 2002, 199쪽)

32) 『우복선생문집』권11, 26쪽., “家禮乃是初年所草未成之書, 與晚年說不同處頗多” 참조.

33) 『우복선생문집』권4, 35쪽, 「議喪禮筭」, “爲人後者爲其父母報 子夏傳曰: 何以期也. 不貳斬也. 持重大宗者降其小宗也.”

절에 근거하여 인조는 생모를 위해 강복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인조가 선조의 친손이기는 하지만 正統은 아니므로 支孫으로서 대통을 入承하였다. 그러므로 대종을 승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종을 승중하였다면 私親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복이 삼년복 대신에 기년복을 주장하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尊祖는 義이고, 親親은 恩이다. 의가 있는 곳에 은은 굽혀야 한다. 존을 위해 낮추어야 할 곳에 사사로운 것을 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천지의 항상 스런 법칙이고, 고금에 두루 통하는 마땅함이다.”<sup>34)</sup>

우복의 예학에서는 사사로운 인정보다도 공적인 의리를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복은 인조가 생부나 생모에 대한 인정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선조의 왕위를 계승한 자로서 즉 권력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私情보다도 공적 의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예에 맞다고 본다. 군주의 경우에는 (사정보다도) 공공적 의리에 중점을 두고 예를 해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조가 즉위한 원년에 인조 생부인 定遠君 제사의 축문에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인조는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을 종통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조부인 선조의 왕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계 김장생은 立後者는 所後에 대해서 부모라 칭하고 생부모에 대해서는 伯叔이라고 칭한다는 『儀禮』의 예문에 따라 인조가 생부인 정원군을 伯叔으로 칭하여야 옳다고 하고, 선조에 대해서는 稱考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계에 따르면 인조는 선조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34) 『우복선생문집』권4, 33쪽, 「擬上議禮節」, “尊朝義也, 親親恩也, 義之所在, 恩有所屈, 尊之所厭, 私不獲伸, 乃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

보아야 대통이 선다고 본 것이다.<sup>35)</sup> 이에 대해서 우복은 정원군에 대해서는 '考'를 칭하되 '堊'자를 더해서는 아니 되고, 인조 자신은子を 칭하되 '孝'자를 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복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생부를 伯叔으로 부르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사계와 우복의 예학적 입장의 차이를 발견한다. 유권중에 의하면 우복의 예학은 명분을 실제와 조화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복이 사계와 똑같은 禮文에 근거하면서도 事體를 보는 관점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 사계는 예문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써 인조의 事體를 규정하려는 입장이 엿보인다면, 우복은 사체에 따라서 禮文적용의 융통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는 實에 근거한 名의 부여라는 그의 예학적 원칙과도 부합한다. 또 이러한 變禮에 대하여 經과 權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이 우복에게서 발견된다. 따라서 상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계가 禮라는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우복은 명분과 실제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이 상호 비교된다.<sup>36)</sup>

우복은 禮記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思問錄』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예절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소학』이 있었지만, 우복은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좋도록 예절 규범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養正篇』을 편저하였다. 이 책은 明儒 屠羲英이 편찬한 『鄉校禮輯』의 童子禮篇을 참고해서 빨 것은 빼고 보탬 것은 더 보태고 고칠 것은 고쳐서 편찬한 것이다.<sup>37)</sup> 『양정편』은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서 언행을 예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 내용 목차를 살펴보면 다

35) 유권중, 「우복의 예학사상」, 『철학논집』제9집, 1997, 186-187쪽.

36) 유권중, 「우복의 예학사상」, 『철학논집』제9집, 1997, 187-188쪽.

37) 『우복선생문집』권15, 23-24쪽, 「書養正篇後示桂兒」 참조.

음과 같다. 세수하고 머리 빗는 법, 옷 입는 법, 손을 교차시키는 법, 읊을 하는 법, 절을 하는 법, 무릎을 꿇는 법, 서 있는 법, 앉아 있는 법, 걸음 걷는 법, 말하는 법, 보고 듣는 법, 음식 먹는 법, 물 뿌리고 청소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따스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법, 잠자리를 살피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법, 출입하는 법, 존장에게 음식을 올리는 법, 존장을 모시고 앉아 있는 법, 존장을 수행하는 법, 존장과 만났을 때의 예법, 존장이 하는 일을 돕는 법, 스승에게 수업 받는 법, 여럿이 모여서 읊을 할 때의 예법, 거처하는 법, 독서하는 법, 글씨를 쓰는 법<sup>38)</sup> 등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포괄하고 있다. 한 예로 ‘앉아 있는 법[座]’에 대한 서술을 보자.

몸을 바르게 하여 단정히 앉되, 옷을 거두어 모으고 공수를 한 채 있어야지, 누워 있거나 빼딱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几案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몸가짐을 장엄하고 엄숙하게 하여야지, 팔을 벌린 채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sup>39)</sup>

『양정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복이 아동들의 생활 예절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를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복은 왕가의 예와 사대부의 관혼상제, 서원 관련 예는 물론 아동들의 예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문적 탐구와 실생활에의 합당한 적용을 위해 사색하고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8) 『국역 우복집4』, 정선용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171-180쪽 참고.

39) 『국역 우복집4』, 정선용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173-174쪽.

## V. 맺음말: 우복 정경세의 학문적 위상과 그 의의

이상에서 우리는 우복의 성리철학, 경세론, 예학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복의 학문적 역사적 위상과 그 의의를 성찰해보기로 한다. 우복은 서애로부터 퇴계의 학통을 전수받은 학자로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켰다. 서애로부터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전수받아서 출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朱文酌海』를 편저하였다. 퇴계의 『주자서절요』가 『주자대전』 가운데 편지글을 모아 놓은 것이라면, 『주문작해』는 書簡 이외에도 훨씬 광범위한 다양한 양식의 글을 모아서 편저한 것이다. 우복의 『주문작해』는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함께 조선 주자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 두 책은 이후 우암에 의해 합본되어 『節酌通編』으로 편찬되었다. 우복은 퇴계의 성리설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예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우복은 퇴계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명학을 비판하고 주자학을 진리의 표준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조선 주자학의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복은 순수 성리설에 대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예학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우복의 예학은 주자와 퇴계의 학설에 근본을 두고 있다. 우복은 서인의 사계와 함께 예학의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도남서원을 설립하여 (영남출신) 동방 유림 5현을 배향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확고히 하였다.

우복은 성리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해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천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다. 명경연관으로서 왕에게 학문을 강의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직설적 상소로 군주의 비정을 비판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서애를 잇는 남인의 리더로서 그는 정치에서도 탁월

할 경륜을 발휘하여 국난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임란에는 의병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힘쓰는가 하면, 고향 상주에 존애원을 설립하여 병으로 고통 받는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고, 목민관으로 강릉부사에 부임하여서는 그 지역을 교화하는 업적을 남겼다. 요컨대 우복은 성리학적 철학과 경제론을 실천으로 옮긴 모범적인 학자이고, 애국적이고 민본주의적 경제가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복은 남인이면서도 서인의 대표적 학자인 사계 김장생 등과 깊은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하였다. 사계는 『經書辨疑』를 저술하면서 우복의 학설을 곳곳에서 인용할 정도로 우복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한다. 우복은 동춘당 송준길을 통해서 퇴계학을 전수함으로써 서인들 가운데도 퇴계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였다. 즉 그는 남인과 서인 사이의 학문적 소통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서인 학자들 가운데도 퇴계학에 대해 우호적인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복과 사계의 학문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예학의 同異點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愚伏先生文集』과 『沙溪全書』에 대한 정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학문적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정경세, 『愚伏先生文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정경세, 『국역 우복집』1-5, 정선용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정경세, 『朱文酌海』, 서울대 규장각(영인), 2005.  
 이황, 『陶山全書』  
 이이, 『栗谷全書』  
 류성룡, 『西厓集』

김장생, 『沙溪·愼獨齋 全書』上, 명보정판사, 1976.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우복정경세선생연구』, 태학사, 1996.

금장태, 『퇴계학과의 사상 I』, 집문당, 1996.

윤친근, 『실천적 예학자 정경세』, 한국국학진흥원, 2002.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권태을·김기탁·김자상·한기민 공저, 『조선최초 사설의료원 - 存愛院』, 문창사, 2005.

김승영, 「17세기 格物致知論에 대한 분석 - 김장생·정경세·윤휴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제36호, 한국동서철학회, 2005, 315-338쪽.

우인수,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9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11, 99-134쪽.

유권중, 「우복 정경세의 예학연구 - 禮관념의 분석 -」, 『동양철학』6, 한국동양철학회, 1995, 185-220쪽.

유권중, 「우복의 예학사상」, 『철학논집』제9집, 경남대학교, 1997, 165-199쪽.

최재묵, 「우복 정경세와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 『한국의 철학』제28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0, 149-178쪽.

최정묵, 「우복 정경세 성리설의 기본입장과 율곡학 비판」, 『율곡사상연구』14, 율곡학회, 2007, 97-113쪽.

Abstract

## Ubok(愚伏) Chung Kyung-se(鄭經世)'s Philosophy and Politics

Jang, Seung-Koo

Ubok(愚伏) Chung Kyung-se(鄭經世, 1563-1633) was a prominent official and scholar in the middle Chosun Dynasty. He was a leading disciple of Ryu Sung-ryong, whose mentor was Toegye Lee Hwang. Ubok represented the scholarly and political position of Nam-in(南人, Southern factio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hilosophy and Politics of Ubok Chung Kyung-se.

In *Li*(理)-*Qi*(氣) philosophy, Ubok basically follows the philosophical theory of Toegye. According to Ubok, *Li* can not be one thing with *Qi*. The metaphysical characteristic of *Li*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material nature of *Qi*. In regard to the meaning of *Gyeokmu*(格物) and *Mulgyeok*(物格), he explains it as follows. If one investigates the principles of things, the principles of things arrive at one's mind. This can be compared to inviting a guest. If one invites a guest, then the guest comes. Ubok recognizes the active aspect of *Li*. Regarding the way of self cultivation, the specific course of classical study is an essential step to attain the noble spirituality of the sage.

With regard to politics, Ubok thinks the self-cultivation of ruler is most basic and important for good government. Preserving ruler's mind and scholarly learning are two essential ways to self cultivation. Besides self cultivation, he emphasizes the financial retrenchment and just personnel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Li-Qi* philosophy, Ubok had much interest in the ritual. In line with Kim Jang-saeng, he had led the era of ritual study in the early 17th century. In the practice of ritual, Ubok pursued the harmony between ritual norms and current customs.

Ubok communicated with scholars from opposite school. Through academic exchange with *Seo-in*(西人, *Western faction*) scholars, Ubok made an effort to understand the scholarly position of other school and to explain his school's theory of New-Confucianism toward *Seo-in*. Ubok not only have developed Korean Neo-Confucianism, but also have played the exemplar role of Neo-Confucian official.

**Key Word**

Ubok Chung Kyung-se, Toygye Lee Hwang, Ryu Sung-ryong, Kim Jang-saeng, *Youngnam* school.

- 논문투고일 : 2011.12.14 심사완료일 : 2012.2.1 게재결정일 : 2012.2.10